

【별첨3】 일러두기

편찬의 기본방침

- 본 불교대사람은 불교사상 및 문화 일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불교사전의 범주를 근본불교술어는 물론, 범불교권 국가에서 특수하게 변형·토착화되거나 새로이 창출된 각종 술어도 포함하여 불교문화에 대한 특수성과 보편성을 함께 이해시킴을 목표로 한다.
- 특별히 한국인의 불교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불교전래 후 천칠백여 년에 이르는 토착화 과정에서 정착된 한국불교 고유의 사상적, 문화적 관련항목을 최대한 발굴·정리, 이를 자주적이고 종합적으로 서술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한국불교 및 민족문화에 대한 넓고 깊은 이해와 긍지를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한국불교문화의 세계화를 추구한다.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항목을 발굴·선정·수록하고, 표제어의 한글순은 물론, 내용 기술에 있어 실질적인 한글화를 도모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가능한 대중적 사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한자어,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베트어 등 범불교권 언어를 병기하여, 술어 설명에 엄밀을 기하며, 정확한 전거(典據)를 바탕으로 내용을 기술하여, 연구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게 사전 활용도를 높고 폭넓게 전문화한다.
- 한국인에게 불교의 사상과 문화를 폭넓게 이해시키기 위해 일차적으로는 불교항목 전반에 대한 백과사전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한국의 불교문화를 폭넓게 이해하고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목표 아래 한국불교 관련 항목이 종합적으로 서술되도록 항목조정과 본문서술에 신중을 기한다.
- 본 사람은 15만여 항목, 본책 15권 규모로 1998년부터 연차적으로 간행하되, 〈색인편〉과 함께 〈보유편〉을 부록으로 두어 사전 간행 후의 연구성과를 반영하고 항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항목 선정

- 명실상부한 불교종합백과사전이 될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는 불교발생기부터 현재까지, 공간적으로는 발생지 인도로부터 티베트, 중국, 나아가 구미지역에 이르기까지, 문헌상으로는 초기 불전에서부터 최근 문헌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모든 용어를 가능한 한 총망라하여 어휘를 직접 채집, 수록하는 것을 항목 선정의 기본 원칙으로 한다.
- 특별히 한국불교 고유의 사상과 문화에 관련된 항목은 최대한 발굴하여 이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 원내 편수원칙에 의한 1,344종의 분류코드에 따라 불교대사람 항목분류표를 작성, 이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항목을 선정하고 수적인 균형을 도모한다.
- 항목 채집 및 1차 선정항목의 대조·확인과 기술 내용 점검을 위해 이미 간행된 국내외 사전류, 색인류 외 연구서적 등을 가능한 한 최대한 대조·검색한다.
- 더불어 내용서술이 동일한 항목의 이칭(異稱), 별칭(別稱) 등은 대표항목 본문에 포함·서술하여 항목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항목들 간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선정 항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공항목과 관련항목을 둔다.
-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베트어, 한자어 등에서 유래한 음사어 항목은 한자 읽기가 있으면 우리말 한자음으로, 음사가 여럿인 경우에는 원음에 가까운 음으로 대표항목을 선정한다.
- 각 분과별 항목의 세부 선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사상·공안 -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 및 소(疏), 초(抄), 사기(私記) 등에 이르는 교종의 제반 사상과 선종의 각 종파별 사상 및 공안(公案) 그리고 가풍(家風)을 모두 다룬다.

- 언어 · 문자 - 불교와 유관한 주문, 방언을 포함하여 불교권의 주요 언어인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베트어 및 그 외 특수언어에 대한 개관을 포함한다.
- 인물 - 불교 발전이나 변동을 주도하면서 사상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그 생애와 활동을 서술할 필요가 있는 실존인물을 선정하되, 당·현대 인물의 경우에는 집필 당시를 기준으로 생존 인물은 제외한다. 또한 일반인의 경우 성명을, 스님인 경우에는 법명(휘 諱)을 본항목으로 하되, 호(號)나 자(字)가 더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호나 자를 대표항목으로 선정한다.
- 사원 - 현존하는 전통사찰은 물론,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사찰과 폐사지(廢寺址)라 할지라도 모두 포함한다.
- 사건 - 불교사에 의미가 있는 사건 및 기록들을 포함한다.
- 교단 및 의례 - 원시교단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불교 역사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간주되는 교단사 및 교단의 양태, 불교의례의 양태 등을 포함한다.
- 문헌 - 삼장 및 소, 초, 사기, 문집, 탁본은 물론 불교의 사상, 문화, 역사 등을 언급한 외전 등을 포함하며, 경전성립과 대장경 조판 및 인경 사례 등도 기술한다. 단, '불설(佛說)···'로 시작되는 경전의 이름은 '불설'을 생략하고 표제어로 선정한다.
- 예술 -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건축 공예품 등을 포함한다.
- 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불교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유물·유적이려면 가능한 한 포함한다.
- 기타 - 불교의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도 불교전적을 해독하는 데 필요하거나 불교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술어라면 가능한 한 수록한다.

항목 배열

- 한글 가나다순으로 하되, 초·중·종성의 배열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초성 -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ㅍ ㅂ ㅅ ㅇ
 ㄺ ㄻ ㆁ ㄽ ㅆ ㅈ ㅊ
 - 중성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ㅢ 과 내 외
 ㅤ ㅥ ㅦ ㅨ ㅩ ㅪ ㅫ ㅬ

- 종성 - ㄱ ㅋ ㆁ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ㅌ ㅍ
ㅊ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ㅍ ㅏ ㅑ ㅓ ㅕ
ㅗ ㅛ ㅜ

■ 같은 음·같은 글자인 항목은 다음 원칙에 따라 배열한다.

- 개념 → 교리 · 사상 → 인물 → 자연물 → 지명 → 의식 → 문헌 → 제도 → 사원 → 단체 → 사건 → 유물 · 유적순으로 하되
 - ① 시간적인 경우는 시대순으로
 - ② 공간적인 경우는 가나다순으로 한다.
- 한자가 다를 경우 별도 항목으로 처리하며, 항목 첫글자 한자의 총획수에 따라 배열하되 총획수가 같을 경우, 부수(部首)의 획수에 따라 배열한다.
- 한자가 같은 경우 동일 항목 내에 1 · 2 ... 식으로 병렬 나열한다.
- 사원의 이름이 같을 경우 지역별로 배열하되, 서울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인천 → 강원도 → 경기도 → 경상도 → 전라도 → 제주도 → 충청도 → 평안도 → 함경도 → 황해도 → 중국 → 기타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제어표기

- 표제어는 신명 견명조 한글로 표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한자어 및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베트어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순차적으로 병기하되, 이때 산스크리트어는 [S], 팔리어는 [P], 티베트어는 [T] 문자로 구분하며, 콤마와 마침표를 사용하여 나열한다.

예) 감로 甘露 [S] amṛta, [P] amata, [T] bdud-
rtsi.

- 한글과 한자음의 우리말 표기는 문교부 제정 표준용어집 및 국정교과서의 한글맞춤법 표기원칙에 따르되, 다만 오래전부터 한자음이 변하여 우리말화한 것이거나 산스크리트어의 음사한자인 경우에는 상용화된 대로 표기한다.

- 우리말화한 경우

예) 도량 道場 (○) 도장 道場 (×)
시방 十方 (○) 십방 十方 (×)

- 산스크리트어의 음사한자인 경우
예) **보리** 菩提 (○) **보제** 菩提 (×)
 바라밀 波羅蜜 (○) **파라밀** 波羅蜜 (×)
 다라니 陀羅尼 (○) **타라니** 陀羅尼 (×)

■ 한글과 숫자의 혼합 표기는 한글맞춤법 표기안에 따라 적절히 사용한다.

■ 특수 분야 용어는 관련학계의 통설을 따르되, 학계에서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공항목 및 관련항목의 처리와 표기

- 공항목은 항목에 대한 서술 내용이 없는 것으로 ➡를 사용하여 그 본항목으로 참조표시를 하며, 관련항목은 동등한 위치에 있거나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항목으로 내용 서술 후 ⇨를 사용하여 참조표시를 한다.

예1) **가니라** 迦尼羅 ➡갈니가수 羯尼迦樹

예2) **가니타** 迦尼吒 [S] kaniṣṭha의 음사어. 고대 인도 쿠샤나([S] Kuṣāna : 貴霜)왕조의 제3대 왕인 가니색가([S] Kaniṣka)왕의 다른 이름이다. ⇨가니색가왕 迦膩色迦王

- 공항목 내지 관련항목이 다수 열거될 경우에는 관련의 중요도 순으로, 병렬관계일 경우에는 가나다순으로 게재하며, 항목 간을 콤마로 구분한다.

예) **가나함모니불** 迦那含牟尼佛 ➡가나가모니 迦那伽牟尼, 구나함모니 拘那含牟尼

본문서술

■ 본문 서술방식은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하여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가능한 한 풀어쓰되, 필요한 경우 괄호를 사용하여 이를 보완한다.

- 어려운 술어나 전문용어 등은 처음 서술되는 부분에서 그에 해당하는 한자,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베트어 및 기타 용어 등을 () 안에 병기한다.

예) **가가라** 伽伽羅 [K] Karkaṭa, [P] Kakkāṭa의 음사어. 부처님께서 바이살리의 중각강당(重閣講堂 [S] Kūṭāgārasāla)에 ...

- 또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 표식 아래

에 간단한 해설을 덧붙이도록 하며,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베트어 등의 음사어인 경우에도 원어를 먼저 쓰고 그 뒤에 :를 사용하여 그 뜻을 부기한다.

예1) 니야야([S] Nyāya : 正理)

예2) 8개소의 불탑을 친견하려고 고비사막을 지나 총령(葱嶺 : Pamir고원)을 넘어 ...

- 집필자명, 참고문헌, 표에서는 원어를 노출시키며, ‘나 』’ 속의 한글, 원어 병렬표기시에도 괄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 맞춤법 및 띄어쓰기는 항목표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문교부 제정 한글맞춤법 및 국정교과서의 표기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학계에서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것은 집필자의 견해 혹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사전 편집상 필요에 따라 약간의 예외를 둔다.

■ 불교에서 상용하는 복합명사는 붙여쓰기로 한다.

예) 일체중생 (○) 일체 중생 (×)
 시방세계 (○) 시방 세계 (×)

■ 중국·일본 등 한자문화권의 한자어는 우리말 한자음으로 표기하되, 고유명사인 경우에는 일본 혹은 중국 현지음으로도 표기한다.

■ 상용하는 술어의 음사어가 2종 이상일 경우에는 인용문에 준하여 표기하되, 한자어 인용시에는 한자에 준하고 범어 인용시에는 범어 음사에 준한다.

예) 아뢰야식(阿賴耶識 [S] ālaya-vijñāna) (○)
 알라야식([S] ālaya-vijñāna : 阿賴耶識)(○)

■ 연대는 서력기원으로 표기하되, 필요시 괄호 안에 불기년(佛紀年), 왕조년(王朝年) 등을 부기한다. 다만 본문 서술 중 불기년 혹은 왕조년이 중요한 경우에는 먼저 밝힐 수 있다.

■ 인명은 일반인의 경우 성명을 쓰고, 스님인 경우 원칙상 법명(諡諱)을 쓰되, 호(號)나 자(字)가 더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베트어의 표기

- 각각 그 약자에 해당하는 [S]·[P]·[T] 문자를 사

용하여 구별하며,

- 첫글자는 소문자를 원칙으로 하나, 단 인명·지명·불·보살·책이름 등은 대문자로 시작한다.

예) 가니색가와왕 迦膩色迦王 [S] Kaniska, Candana-kaniska, [P] Kanisika. 2세기 무렵 고대 인도의 이란계 쿠샤나([S] Kuṣāṇa : 貴霜·月支國·月氏國) 왕조의 제3대 왕인 카니쉬카 1세.

- 산스크리트어·팔리어의 복합어 표기는 관습적 사용에 준하되, 수사는 하이픈(-) 없이 띄어쓰기를 한다. 단 2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복합어의 경우에는 식별의 편의를 위해 매 단어마다 하이픈을 사용한다.

예) 개시오입 開示悟入 [S] samādāpana-saṃdarśana-pratibodhana-avatāraṇa.

- 본항목에 대한 서술이 병렬로 나열되었을 경우에는 ①·② 등을 사용하고, 하나의 단어에서 비롯된 부연 설명일 경우에는 ①·② 등을, 더 부연할 때에는 ㉠·㉡ 등을 사용한다. 이때 명사형으로 끝날 경우에는 쉼표를, 동사형으로 끝날 경우에는 마침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1) 기린사 麒麟寺 ① 충청남도 온양군 고달산에 있었던 절. 지금은 폐사(廢寺)되었다. [참고문헌] 『東國輿地勝覽』 권19, 『韓國寺刹全書』 권상. ② 함경남도 신흥군 원평면 천불산(千佛山)에 있었던 절. …

예2) 간경파 看經派 한국사찰 간경제도의 한 측면. 강하(講下) 학인을 독서파(讀書派)와 간경파로 나누는데, 간경파는 다시 3과(科)로 분류된다. 곧 ① 능엄(楞嚴)·기신(起信)·반야(般若)·원각(圓覺)의 사교파(四教科), ② 화엄(華嚴) 1부 현담(玄談) 삼현십지(三玄十地)에 『탐현기 探玄記』를 겸수하는 대교과(大教科), ③ 전등(傳燈)·염송(拈頌) 양부에 속하는 격외과(格外科) 등을 말한다. [참고문헌] 『韓國近世佛教百年史』 권2 教育編年 pp.1~3.

- 학계에서 논란이 있는 항목 서술은 집필자의 관점을 중시하되, 이설(異說)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판단의 자료를 제공한다.

출 전 및 참 고 문 헌

- 내용 서술의 이해에 도움이 될 문헌, 논문 등을

다음의 원칙에 따라 인용, 수록한다.

- 본문 서술시 원문에 대한 직접 인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말로 번역하고 원문을 부기한다.
- 직·간접적으로 인용한 책은 [참고문헌]에서 다시 게재하며, 본문 중에서는 한글로, [참고문헌]에서는 원전어로 문헌명을 표기한다.

예) 가 笳 [S] vaṃśa, [P] vamsa. 대나무피리(竹笛). 2권본 『나선비구경』(대정장32, p.6 96c13)에 “마치 사람이 대나무피리를 불어 숨을 내쉬었다가 다시 들이키지 못하는 것과 같다. 如人吹笳氣出 不復還入”, … [참고문헌] 『那先比丘經』, Mil., Vv-a.210.

- [참고문헌] 위치는 항목의 맨 끝으로 하되, 단 본 항목에 대한 서술이 ①·②로 병렬 나열되었을 경우에는 그 끝에 게재한다.

예) 굴암 窟庵 ① 경상남도 창원시 현동면 대장리에 있었던 절. 창건연대·창건주 등 자세한 사실은 알 수 없다. [참고문헌] 『韓國寺刹全書』 권상. ② 경상북도 선산군 연악산(淵嶽山)에 있었던 절. 자세한 사적은 알 수 없다. [참고문헌] 『韓國寺刹全書』 권상 p. 129b.

- 문헌·저서명의 경우에 동양서는 『』, 서양서는 이탤릭체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논문·작품·편명 및 신문기사·법조문제목 등의 경우 「」를 사용하되, 출판사·출판연대 등은 괄호 안에 묶어 표기한다.

예) 고인명 古因明 인도 불교논리학을 집대성한 진나 … [참고문헌] Caraka-Saṃhitā, 『方便心論』, 『解深密經』, 『瑜伽師地論』, 『大乘阿毘達磨集論』, 『如實論』, 『集量論』, 『因明正理門論』, Buddhist Logic(F.T. Stcherbatsky, U.S.S.R., Leningrad, 1930), 『대승불교』 pp.332~338(도서출판 여래).

- 참고문헌이 여럿일 경우에는 우선 ① 본문서술 중 인용된 순서대로 하되, 원전, 학술저서, 논문 순으로 하며, ② 대장경류의 경우 체제 순으로 한다.

- 자주 인용되는 문헌의 경우 약호를 사용할 수 있고, 2단 내지 다단으로 편집된 인용서의 단표시는 a, b, c 등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행을 숫자로 표시한다.

- 고려장 : 고려대장경
- 한불전 : 한국불교전서
- 대정장 : 대정신수대장경
- 근속장 : 근속장경

- 예1) 고려장45, p.250a : 고려대장경 제45권, 250페이지 첫째 단을 의미
 예2) 대정장21, pp.234~250, No.234 : 대정신수대장경 제21권, 234페이지에서부터 250페이지까지에 수록된 경으로 경의 고유번호는 234라는 의미
 예3) 한불전2, p.698a1 : 한국불교전서 제2권 698페이지 첫째 단 첫째 줄을 의미

■ 한문본, 산스크리트어본, 팔리본 등의 상용문헌은 다음 장의 약명표기 범례에 따른다. ⇨ 문헌 약명표기범례

■ 선사의 어록의 경우, 해당 선사의 가장 잘 알려진 법호나 법명에 ‘語錄’을 더하여 문헌명으로 쓰는 것을 일반화한다.

예) 대혜보각선사어록 → 대혜어록
 명각선사어록 → 설두어록

기 호 및 약 호

[S]	산스크리트어
[P]	팔리어
[T]	티베트어
“ ”	완전한 문장 인용시
‘ ’	재인용, 강조시 및 시호·관직명·탑호·비명·주문·경전의 한 구절 등 불완전한 문장 인용시
『 』	문헌·저서명
「 」	논문·작품·경전의 품명·편명 및 신문 기사 표기시
- -	부제
~	부터·까지 (페이지·연도 등에서)
·	문장 내 가운데점으로, 비슷한 사항을 나열할 때 사용
...	내용 생략시
()	한자 및 원어 부기 및 풀이
[]	소제목

:	본문 설명 부분에서 부연 설명시
→	법맥의 대수 표시
➡	공항목 표시
⇨	관련항목 표시

도 판 및 기 타 자 료

■ 본 사전에서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부각시키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진, 삽화, 도표, 지도 등 도판 자료 약 천오백여 종을 본문의 해당 부분 혹은 별면 화보에 수록한다.

■ 도판자료는 해당 항목의 성격과 내용을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선정한다.

■ 자체에서 제작하지 않은 자료는 그 제공자 또는 제작자를 밝히며, 유일본·희귀자료 등 특수자료는 소장처를 밝힌다.

- 본 권의 희귀자료는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성보박물관 등의 협찬과 『佛教植物辭典』(國書刊行會)의 도판자료 사용으로 이루어졌다.

■ 전체 색인은 한글, 한자어,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베트어 별로 작성하여 〈색인편〉 별책으로 발간한다.

■ 각 페이지마다 상단에 해당 페이지의 첫 표제어(찍수쪽)와 마지막 표제어(홀수쪽)를 기재하여 항목 찾기에 편의를 도모한다.

* DB [Excel] 구현 시 미적용 약물은 일부 조정함.
 예) [S]를 [S]로 표기.